

제14권 8호

2024. 4. 15~2024. 4. 28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
| 이슈분석 |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
| 금융경영브리프 | 글로벌 금융사, 결제 사기 방지를 위해 AI 활용
금융 문해력을 위한 청소년기 금융교육의 중요성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연속된 물가 충격에 금리 인하론 후퇴
외 환 : 물가로 불붙은 외환시장에 기름 붓기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송형은(hesong)

논단

KDI 선임연구위원 송영관

이슈분석

수석연구원 정윤영(yunyeong.j)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오유진(yujin.oh)
수석연구원 정순영(sy)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김용태(ket1006)
외 환 | 연구원 진옥희(okheejin)

금융지표

연구원 방승연(sybang)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 06 **이슈분석**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 10 **금융경영브리프** 글로벌 금융사, 결제 사기 방지를 위해 AI 활용
금융 문해력을 위한 청소년기 금융교육의 중요성
- 14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속된 물가 충격에 금리 인하론 후퇴
외 환 : 물가로 불붙은 외환시장에 기름 붓기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송 영 관 KDI 선임연구위원

최근 국제 정세는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다. 본고에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섯 가지 변화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즉 중상주의 위험, 중국 위험, 그리고 안보 위험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본다. 중상주의 위험과 중국 위험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는 CPTPP 가입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와 과학·기술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혼돈의 시기이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통합의 세계 질서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지고 있다. 미·중 갈등의 격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최근의 국제 정세는 통합과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 심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특히 최근 다양한 국제 정세의 변화 중 다섯 가지 변화가 주목된다.

:: 국제 정세의 다섯 가지 큰 변화

첫째, 기후 변화 논의와 대응이 진행 중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세계적 문제 중 하나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산업화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채택으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한국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4.4% 감축을 약속하였다. 기후변화는 주요 탄소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야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근의 국제 정세 변화 중 다섯 가지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둘째, IT·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과학·기술 혁명이 진행 중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AI 및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새로운 IT 기술들이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비즈니스, 의료, 교육,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은 자율 주행 자동차, 음성 인식, 의료 진단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바이오 과학과 기술은 의학, 농업,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 핵융합, 에너지 저장,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과학과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분야의 과학과 기술 진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향후 세계 경제 질서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
과학·기술혁명,
지정학적 위기,
WTO 무력화,
국가 역할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지정학적 위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미·중 갈등, 양안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세계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전 세계 광범위한 공급망 체계에 직접적 위협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 중국과 대만의 갈등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가 간의 긴장, 충돌, 또는 국제적인 불안 요소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는 경제적 효율보다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정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역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넷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가 무력화되고 있다. 1995년 설립된 WTO는 20세기 자유무역의 토대가 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의 후속기구이다. 23개국을 최초의 가입국으로 하여 1948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GATT 체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데 공헌이 컸다. 한국의 수출주도 성장도 1967년 GATT 체제 가입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2019년 12월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와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2001년부터 시작된 도하개발라운드(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정체와 더불어 WTO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이처럼 WTO 체제의 무력화는 결국 글로벌화의 퇴조를 상징한다.

다섯째,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하였다. 지정학적 위기 대응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확대로 인해, 미국과 EU 등 세계 주요 선진국의 정책 방향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 작은 정부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우선시하는 큰 정부로 향하고 있다.

❖ 한국 경제에 닥친 세 가지 위험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변화는 모두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후 변화와 과학·기술 혁명에 대한 정책 대응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위기, WTO 무력화, 국가 역할 확대에 의한 다음 세 가지 위험이 우리 경제의 행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첫째, 중상주의 위험(Mercantalism risk)이다. 중상주의 위험은 주요국에서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 그리고 공급망에 미치는 위험을 지칭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정책은 자유 시장 경제와 개방적인 국제무역을 중시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즉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산업정책을 통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정책 변화와 함께 중국과 인도 뿐 아니라 EU와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중상주의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미국의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도 한국의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중상주의 위험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중국 위험(China risk)이다. 이 위험은 미국의 중국 견제와 함께 중국 자체의 경제와 무역 성장 정체로 인해 수출입과 해외 투자에서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무역과 투자, 그리고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칭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에 중국과의 무역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와 화학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 또한 2010년대 초반까지 중국은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투자처였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견제와 디커플링 압박은 우리 수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위험은 수출입과 해외 투자에서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셋째, 안보 위험(Security risk)이다. 안보 위험은 대만해협 물류 문제와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이 이 지역 공급망에 영향에 미치고, 국제 무역과 투자의 감소를 야기하는 것을 지칭한다. 대만 문제로 한국에 직접적으로 대두된 안보 위험은 우리나라의 존망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설령

국제 정세의 변화는 중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중상주의, 중국 위험, 안보 위험이라는 세 가지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이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아도, 이 위협의 잔존 가능성만으로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대규모 장기 투자는 평화의 지속성과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협은 이처럼 대규모 장기 투자 실현을 저해하고,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 우리나라의 선택은?

안타깝게도 중상주의와 중국 및 안보 위협은 모두 향후 감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 위협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올해 미국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의 확산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대응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상주의와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중국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CPTPP 가입은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첫째, 중상주의 위협과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말에 타결된 IPFE((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공급망 협정의 서명국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과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이 가장 효과적이다. CPTPP는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위해 TPP에서 도입한 누적 원산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CPTPP 회원국에서 생산된 모든 중간재는 CPTPP 수출국의 자국 생산 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96%로 매우 높은 시장 개방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중상주의 위협과 중국 위협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 이러한 CPTPP 가입을 막고 있는 농어민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협정 체결 후 발생하는 농어민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유일한 방안은 외교적 노력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중국과 대만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을 유지하고 정세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국과 함께 안보 위협의 확산이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안보 위협은 한국 경제에 매우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셋째, 중장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R&D 투자와 기술 창업이 필수적이다. 기후 변화 대응과 과학·기술 혁명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의 지형이 변화하고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기후 변화와 과학·기술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이 분야에 R&D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AI,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전환, 국방 분야 등에서 기술 창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첨단 분야로 자본을 집중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협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국제 무역 질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한국 수출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역 다변화 노력뿐만 아니라 내수 확대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기후 변화와 과학·기술 혁명에 대응하는 정책을 통한 국내 신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함께 소비재의 가격을 낮추는 관세 개혁, 소득의 극단적 불평등을 방지하는 조세 개혁과 같은 수요 측면의 노력도 필요하다. 중상주의 위협, 중국 위협, 그리고 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핵심 광물자원을 보유한 북한과의 협력과 경제 통합에 따른 이익이 주목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너무 멀다는 점이 안타깝다. 

중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와
과학·기술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정윤영 수석연구원

플랫폼 노동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 노무, 보조서비스에서 전문서비스까지 플랫폼 노동 제공 범위 확대와 더불어 주업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종사자들의 소득수준도 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규칙한 소득 및 서류증빙 문제로 인해 종사자 대부분은 금융기관 접근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플랫폼 종사자가 더이상 소수의 근로자 문제가 아닌 만큼 새로운 틀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자리 중개 플랫폼의 등장으로 플랫폼 노동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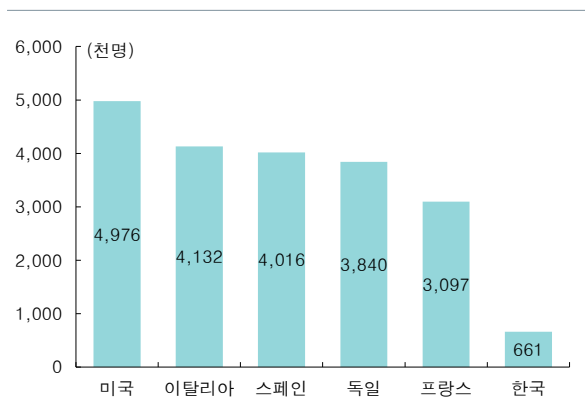
- 스마트폰 보급, 어플리케이션의 활성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이 본격적으로 등장
 - ‘플랫폼노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하여 조직 또는 개인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일자리를 의미
 - 웹작업을 매개하는 플랫폼 숫자(국제노동기구): 142개(‘10년) → 777개(‘20년)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웹기반 플랫폼노동^[1]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지역기반 플랫폼노동^[2]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련 노동 시장이 확대
 - 미국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의 비중이 2.5%에 해당하며, 유럽의 경우도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3%에 해당(‘21년 기준)

■ 플랫폼 노동 유형

유형	상세
온라인 사무 및 데이터 입력	고객 서비스, 데이터 입력 등
온라인 전문 서비스	회계, 법률, 프로젝트 관리 등
온라인 창작 및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등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 지원	광고 게시, 소셜 미디어 관리 등
온라인 집필 및 번역	기사작성, 카피라이팅, 번역 등
양방향 서비스	언어교육, 온라인 수업, 상담 등
운송 및 배달 서비스	운전, 음식 배달, 이사 서비스 등
보조 서비스	가사도우미, 미용서비스 등
현지 보조 서비스	단기임대숙소 운영 등

자료 : COLLEEM

■ 국가별 플랫폼 종사자 수(2021)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1] 웹기반 플랫폼노동 :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을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 워크, 이랜서,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AMT) 등이 이에 해당

[2] 지역기반 플랫폼노동 :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을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택시운전기사, 우버이츠, 가사서비스 어플 등이 이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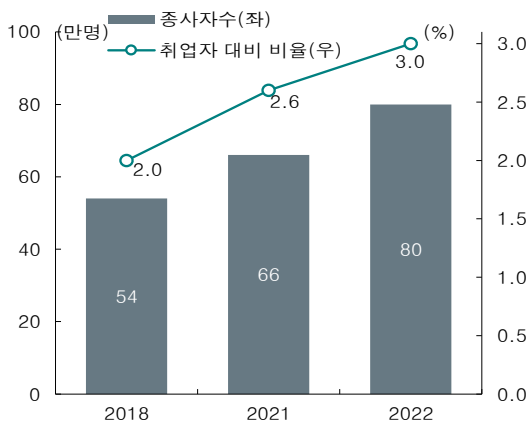
■ 팬데믹 이후 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도 급증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주업화 경향, 제공 서비스의 전문성 및 다양성 등으로 인해 관련 소득도 점차 커지는 추이

-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국내 플랫폼 노동시장도 확대되는 가운데 광의의³⁾ 플랫폼 종사자까지 범위를 더한다면 종사자 수는 약 292만명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 수 및 비중: 220만명('21년) → 292만명('22년)
- 최근에는 부업으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보다 주업으로 하는 종사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월 평균 소득도 상승
 - 주업 플랫폼 종사자 수 및 비중 : 31.2만명/47.2% ('21년) → 45.8만명/57.6% ('22년)
 - 주업 플랫폼 종사자의 월 평균 소득 : 145.9만원('20년) → 224.5만원('22년)
- 배달, 배송, 운송서비스 외에도 번역, 법률·세무 자문, 강사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도 빠르게 증가하여 관련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수 및 비중: 8.5만명/10.6%('22년 기준)

■ 플랫폼 종사자 수가 확대되고 소득이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대부분은 서류증빙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기관 이용에 고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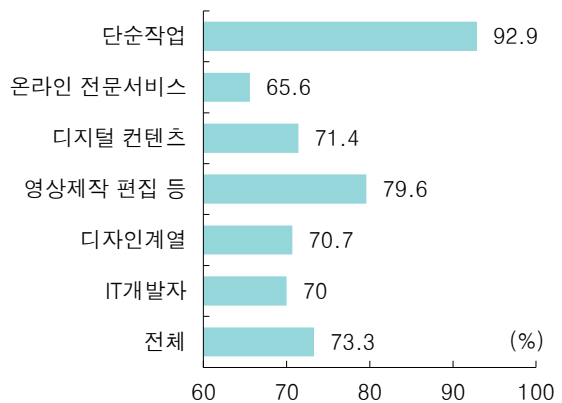
-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73%는 대출 시도 중 서류 증빙(소득·재직 등)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과 오프라인(배달, 가사 등)을 통해 노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기반형 플랫폼과 다르게 온라인상에서 일이 진행 및 처리되는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함에도 오프라인 실체가 없어 경력 증빙 등이 더욱 어려움

■ 국내 플랫폼 종사자 추이(협의의 종사자 기준)



자료 : 국회도서관 발간자료 Data&Law(2023)

■ 플랫폼 종사자의 금융기관 이용 서류증빙의 어려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21)

³⁾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증가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의미하며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자를 의미함

■ 일찍이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에 관심을 가졌던 국가들도 이들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며, 이로 인해 금융서비스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

-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근로형태를 인정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 및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도입 중이지만 근로조건, 분쟁해결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 (프랑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법제화 한 대표적인 국가로 노동법 하에 플랫폼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두는 등 사회보험의 보호규정을 명문화
 - 주로 사회보장에 기반한 정책으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
- 실제 해외 플랫폼 종사자들 역시 특수한 형태의 고용 상태로 인해 보험, 대출, 카드발급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약 66%의 플랫폼 종사자들은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모기지 대출에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역시 제한적이라고 응답
 - (인도) 대출이 필요한 플랫폼 종사자들 중 20%는 가족 및 친지들에게, 8%는 대금업자에게, 30~40% 정도는 소득증빙이 필요 없는 고금리 대출에게 자금지스를 해결

■ 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금융이력 관리 플랫폼이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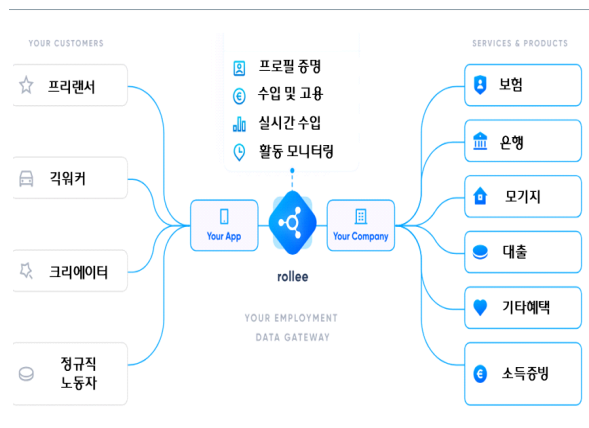
- 수입이 발생함에도 소득금액 및 빈도가 불규칙하여 금융상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 종사자 대상의 고용 및 소득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등장
 - 플랫폼 종사자의 금융접근성 저해의 주원인으로 불규칙한 소득, 기존 금융기관의 소득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소득세 납부이력 부재 등이 지목
 - 이에 프리랜서, 각워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및 소득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ROLLEE, NOVO, bankuish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ROLLEE는 금융기관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

■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금융관리 플랫폼

플랫폼	주요 내용
ROLLEE	● 플랫폼 종사자의 분산된 고용 및 소득 데이터를 기록하여 금융이력을 생성
NOVO	● 플랫폼 종사자 대상의 온라인 비즈니스 बैं킹 앱으로 수입 및 지출 장부 등을 관리하고 세금납부에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
bankuish	● 프리랜싱 플랫폼 및 은행계좌에 연동하여 신용정보를 생성
Revolut	●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득, 지출 및 비용관리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플 제공 ● 하나의 직불카드로 개인 및 사업자 계정을 모두 관리 가능

자료 : 각사 홈페이지

■ ROLLEE 메커니즘




자료 : ROLLEE

■ 또한 국내의 핀테크사를 중심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겨냥한 금융상품도 출시

- (선정산) 노동을 제공한 시기와 급여 정산시기의 불일치로 관련 니즈가 증가
 -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운송수단 수리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주로 고금리 신용대출에 의존
- (소액대출)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의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
 - 해외는 다양한 플랫폼에 연동함으로써 직업별 대출 커버리지가 넓은 편인 반면 국내는 라이더 등 특정 플랫폼 종사자에게 상품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
- (모기지) 해외의 경우 금융이력 관리가 잘 되어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기지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소득의 연속성 증빙 문제로 인해 관련 대출이 부재

■ 플랫폼 금융은 발전하고 있지만 플랫폼 내 종사자들은 오히려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플랫폼 노동시장의 성장 가속화로 종사자들의 금융니즈도 확대되고 있으나 데이터 불투명성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해 금융서비스 이용에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
 - '23년 기준 전세계 각 이코노미 규모는 4,550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2018년(2,040억 달러) 대비 2배 더 큰 규모(statista, mastercard)
- 플랫폼 종사자들의 금융이력 생성이 가능하도록 소득 및 지출 관리, 소득세 납부, 저축 등의 금융교육 제공과 더불어 노동시간 및 소득 데이터를 집계하고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
-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반하여 등장한 특수한 근로형태인 만큼 전통적인 틀에 맞추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소득인정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도 필요 

■ 해외 플랫폼 종사자 대상 금융상품

유형	플랫폼	상세내용
선정산	KARMALIFE (인도)	• 저축과 수입등의 정보를 연동하여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
	Moves Financial (미국)	• 주요 각 워커 플랫폼 및 계좌 잔고 연동을 통해 최대 \$1,000달러의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
소액대출	GIGfinance (캐나다)	• 배송기사, 자영업, 아티스트 등의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750까지 소액대출을 제공
모기지	First Choice Finance (영국)	• 2년 동안의 소득자료, 공과금 및 소득세 납부 이력 등을 이용하여 모기지 제공

자료 : 각사 홈페이지

■ 국내 플랫폼 종사자 대상 금융상품

유형	플랫폼	상세내용
선정산	8PERCENT	• 제휴사 소속 각워커 대상의 온라인 P2P대출
	S카드	•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정산 주기를 앞당겨주는 카드기반 소득 선정산 서비스 제공
소액대출	K은행	• 티맵 플랫폼 대리기사 대상의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비상금 대출
	D저축은행	• 라이더/커넥터 고객을 위한 모바일 전용 대출상품
	S은행	• 라이더를 위한 소액 대출

자료 : 각사 홈페이지

글로벌 금융사, 결제 사기 방지를 위해 AI 활용

오 유 진 연구위원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며 세계적으로 결제 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VISA는 비대면, 실시간 거래에서 사기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AI 기반의 디지털 결제 사기 방지 도구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마스터카드, PayPal 등도 사기 탐지 및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AI 기반의 최첨단 사기 탐지 기술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비대면 트렌드 속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보급으로 결제 사기 위험이 상승

-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카드는 물론 디지털 지갑, 후불결제와 같은 신규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며 결제 사기 위험이 증가
-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미국 내 결제관련 사기건수 변화를 보면, 계좌 송금(Wire Transfer)과 같은 전통 방식은 줄어들고 은행 송금/결제나 결제 앱/서비스, 암호화폐 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도 여전히 높은 상황
-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직불카드 사기관련 손실액은 '14년 181억 달러에서 연평균 8%씩 늘어나 '22년에는 33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확대

■ VISA,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결제 사기 방지 도구를 추가하며 보안 강화에 매진^[1]


- VISA가 급번 공개한 'VISA 심층 승인(VDA)' 제품은 순환 신경망(RNN) 모델과 페타바이트 규모의 상황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래 위험 점수를 산정하여 발급사(Issuer)가 비대면 카드 거래를 더 잘 관리하고 승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 또한 VISA 이외의 거래를 포함하는 'VISA 고급 승인 및 위험 관리' 제품은 발급사의 사기 탐지 활동을 단순화시켜 비용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
- P2P 디지털 지갑, 계좌 간 결제 등 실시간 거래 보호를 위해 딥 러닝 AI 탐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계좌 간 결제 보호' 제품도 최초 공개
- VISA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및 사기 방지 분야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으며, '23년 VISA가 방지한 사기 금액은 400억 달러에 달함

[1] "Visa Adds New AI Tools to Help Fight Digital Fraud on Payments", Bloomberg, 2024.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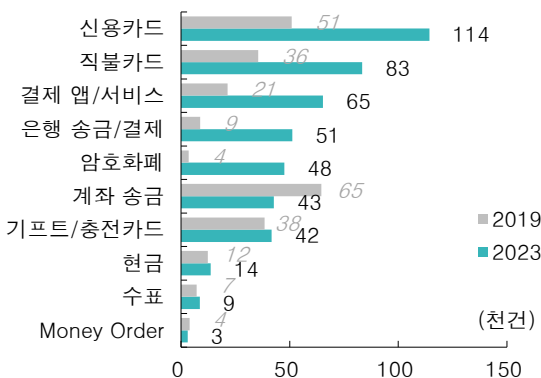
■ 마스터카드, PayPal 등도 사기 탐지 및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해 AI 기반 도구 개발

- 마스터카드의 사기 거래 탐지 및 방지를 위해 자체 AI 시스템(Decision Intelligence Pro)을 구축했으며, 사기 탐지율을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힘²⁾
 - 카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연간 1,250억건의 거래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기 거래 발생 확률을 점수형태로 나타내고 거래의 합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
- PayPal은 최근 결제 과정을 단순화하고 쇼핑 경험을 개인화할 수 있는 AI 도구를 출시했으며³⁾, 사기 탐지를 위해 AI기반 행동분석을 활용 중
 - 사용자 행동, 거래 내역 및 기타 수집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정상 활동 프로필을 구축한 뒤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이상 거래를 감지
- JPMorgan Chase는 거대언어모델(LLM)을 결제 유효성 검사에 활용한 결과, 계좌 거부율이 15~20% 낮아지는 등 사기 탐지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

■ 국내 금융회사도 AI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고객 보호에 나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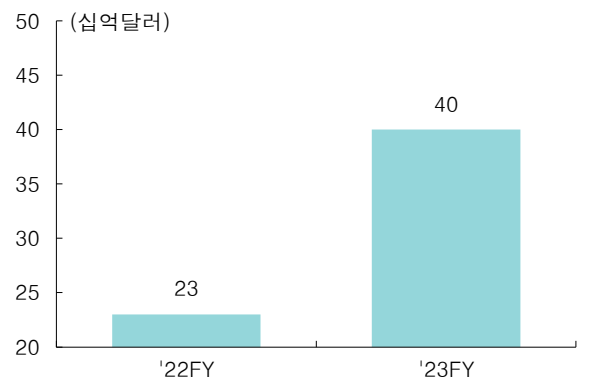
- 딥페이크 등 정보기술 부작용과 데이터 유출사고 등으로 사기 영역이 다양화되고 행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도 진화가 요구
- VISA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사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실시간 이상 패턴 감지, 위험 관리 등의 신규 서비스를 지속 추가
- 국내 금융회사들도 고객의 이익 보호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AI 기반의 최첨단 사기 방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도입할 필요 

■ 결제 방법에 따른 미국 내 사기 보고건수 변화



자료 : Federal Trade Commission

■ VISA가 탐지하여 차단한 사기 규모



자료 : VISA

[2] “Mastercard jumps into generative AI race with model it says can boost fraud detection by up to 300%”, CNBC, 2024.2.1

[3] “PayPal to launch AI-based products as new CEO aims to revive share price”, Reuters, 2024.1.26

금융 문해력을 위한 청소년기 금융교육의 중요성

정 순 영 수석연구원

건전한 재정생활을 위해서는 금융 문해력이 중요하다. 미국은 4월을 금융문맹탈피의 달로 지정해 매년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 문해력과 재정 습관을 갖추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금융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보장하는 법안도 주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젊은 세대의 금융역량을 위해 정부기관·은행들이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학교 내 정규수업으로 금융 공교육이 자리 잡는 게 이상적으로 보인다.

■ 美, 4월을 “금융문맹퇴치의 달”로 지정해 매년 금융지식의 중요성을 강조

- 금융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현명한 자금 관리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문맹퇴치의 달(Financial Literacy Month)’을 지정
 - 2000년 청소년 금융교육의 날(Youth Financial Literacy Day)에서 시작됐으며, 2004년 美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며 4월을 ‘금융문맹퇴치의 달’로 선포
- 4월 동안 연방정부, 주, 학교, 비영리단체, 기업 등은 금융지식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이벤트·프로그램·상담을 통한 금융교육, 개인·가계의 재정 안정 개선을 지원

■ 금융 문해력 및 재정 습관을 갖추는데 고등학교 때 금융교육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

- TIAA Institute 보고서^[1]는 미국의 개인금융지수가 2017년부터 7년간 50%대 전후로 정체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청소년기의 금융수업을 언급
- 실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에서도 고등학교 시절의 부족한 금융교육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 설문 결과, 미국 성인의 88%는 고등학교 시절 금융 준비가 부족했고 75%는 고등학교 시절 금융교육을 받았다면 현재 금융생활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응답
- Champlain College 보고서^[3]에 인용된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재정교육이 신용점수를 압도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출연체율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1] “The 2023 TIAA Institute-GFLEC Personal Finance Index”, TIAA Institute&Global Financial Literacy Excellence Center(2023.04)


[2] “The Financial Literacy Crisis in America 2023 Report”, Ramsey Solution(2023.12)

[3] “2023 National Report Card On State Efforts to Improve Financial Literacy in High Schools”, Champlain College(202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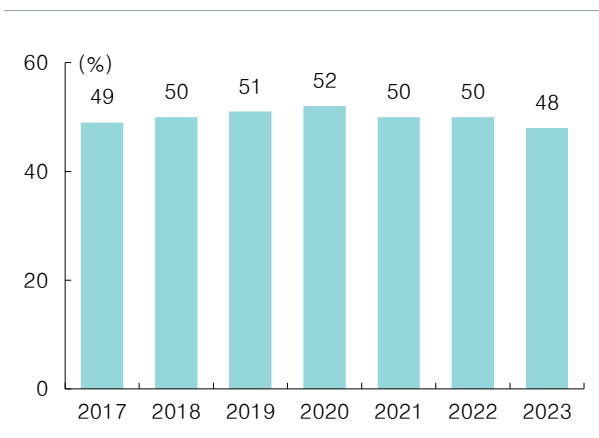
■ 행정구역 단위로 고등학교 금융교육 이수율 보장하며, 은행도 학교와 연계해 교육 지원

- '23.12월 기준 미국 25개 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기 전 최소 1학기 동안 개인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 생활과 관련된 금융교육과정을 모두 포괄하고 실습 활동 및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해 최소 1학기 이상의 교육기간 소요
- 은행은 고등학교와 연계해 경험에 기반한 금융교육·서비스를 지원
 - (Bank of America) Boys & Girls Clubs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등학생들에게 실무 경험 및 예산 책정과 저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Credit Union of Texas) Allen High School과 제휴해 학교 내에 학생직원에 의해 운영되는 SMART지점을 개설, 계좌개설·카드발급·카드발급 등 모든 금융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1년간 학생직원으로 근무 시 \$1,000의 장학금을 지급

■ 국내도 젊은 층의 금융교육을 지원 중이나, 장기적으로는 금융의 공교육화 추진이 이상적

- 현재 금융위, 은행에서는 청년/학생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서비스를 지원 중
 - (금융위) 대학생·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청년금융상담창구를 운영해 금융진단 및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관리 등을 지원
 - (은행) 학생을 대상으로 연령층에 맞춰 금융교실/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 장기적으로 금융교육이 학교 정규수업으로 자리 잡는 것이 체계적 학습에 도움
 -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금융을 정규교과로 반영하고 있으며, 단일과목 대신 사회, 수학 등의 과목에 금융관련 단원·주제를 섞어 금융교육을 진행
 - 한국은 2025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편성하며 금융 공교육화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 

■ 미국 성인 개인금융지수 (P-Fin Index)



자료 : TIAA Institute-GFLEC Personal Finance Index (2017-2023)

■ 시중은행 주요 금융교육 현황 (미성년/학생 대상 중심)

은행	금융교육	대상 및 교육내용
하나	하나돌셋 금융아날자	거래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금융교실로 돈의 가치/용돈관리 등을 교육
	열여덟 홀로서기	아동보호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KB국민	KB스타 경제교실	초·중·고등학생에게 투자, 자산관리 등 금융지식 전반을 제공
	신한어린이 금융체험교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장발급, 적금가입, 환전 등 체험형 금융교육을 진행
신한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	도서산간지역의 초·중학교에 방문해 금융지식 교육 및 은행원 직업체험 진행
	N키즈 금융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특강 및 금융·직업체험 등 단계별 금융교육 진행
NH농협	행복채움 금융교실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금융상식 이론교육

자료 : 각 사

금리: 연속된 물가 충격에 금리 인하론 후퇴

김 용 태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연준 양대 책무인 고용·물가안정 모두에서 정책전환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美 정책 전환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크게 후퇴하며 상승했다. 국내 금리도 수출 개선과 소비자물가 반등 속 대외 금리 동조화 영향으로 상승했다. 3개월 연속 美CPI·근원CPI가 전월비 0.3% 이상 상승해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확산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국내는 미국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가져가기 어려운 만큼 정책 불확실성 속 높아진 금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美 고용 및 물가지표 예상치 상회로 금리 인하 기대 후퇴하며 크게 상승

- 원유·금·구리 등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ISM제조업 및 지불가격지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물가 재반등 우려가 점증
 - ISM제조업/지불가격지수(pt) : 3월 47.8/52.5 → 4월 50.3/55.8 (예상 48.5/53.3)
- 고용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CPI/근원CPI가 3개월 연속 전월비 0.3% 이상 상승하며 ‘경기 연착륙+디스인플레이션’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확대
 - 비농업고용증감/실업률(만 명, %) : 2월 27.0/3.9 → 3월 30.3/3.8 (예상 21.2/3.9)
 - 美 CPI/근원CPI (MoM, %) : 1월 0.3/0.4 → 2월 0.4/0.4 → 3월 0.4/0.4 (예상 0.3/0.3)
- 연준의 책무인 고용·물가안정 모두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데이터가 발표됨에 따라 정책 전환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큰 폭으로 후퇴하며 금리 상승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3.28일 4.63/4.21 → 4.5일 4.76/4.41 → 11일 4.97/4.59


■ 국내 금리는 비둘기파적 금통위에도 소비자물가 반등과 대외 금리 동조화 영향으로 상승

- 한국 3월 소비자물가는 과일 가격 급등(40%)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유가 반등(석유류 물가 기여도 플러스 전환) 등으로 3%대 흐름 지속
 - 韓 CPI/근원CPI (YoY, %) : 24.1월 2.8/2.6 → 2월 3.1/2.6 → 3월 3.1/2.4
- 3월 수출은 반도체(35.8%)를 필두로 한 IT 수출 회복세 속에 대미·대중 수출 호조에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으나, 국내 소매판매 부진으로 내외수 차별화 지속
- 금통위는 경기 평가 상향한 가운데 근원물가의 둔화 추세에도 유가에 따른 헤드라인 물가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하반기 인하 여부에 대해 예단하지 않는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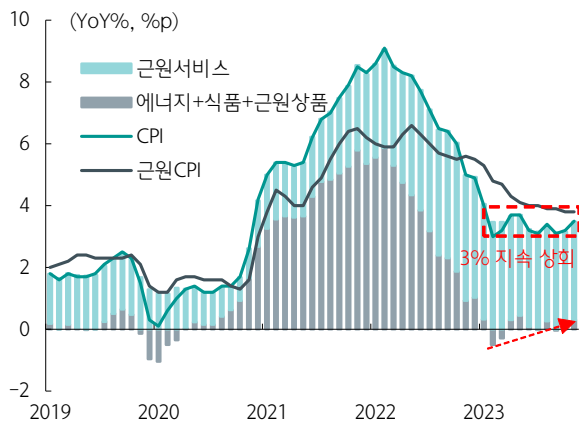
■ **예상을 상회한 인플레이션 발표에 시장 우려 높아지며 금리 인하 기대 후퇴**

- 3개월 연속으로 CPI가 예상치 상회하면서 3월 점도표에서 시사된 ‘경기 연착륙+디스인플레이션+연내 3회 금리인하’라는 연준 계획에 대한 시장 의문이 확대
- 선행지표 둔화에도 높은 수준의 주거비 상승이 지속되며 서비스물가가 반등했고, 헤드라인·근원CPI가 3개월 연속 전월비 +0.3% 이상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 점증
- 서비스물가 반등 속 디스인플레이션에 기여했던 재화물가도 원자재 가격(유가, 구리 등) 및 ISM제조업가격지수 상승으로 공급 측 상승압력이 부각되기 시작
 - 다만,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중소기업 낙관지수(88.5pt), 초과저축의 소진, 높아지는 신용카드 연체율 등을 감안할 때 수요 측 상승압력은 점차 둔화될 전망
- 물가가 3%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일 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지속에 따른 연내 금리 인하 전환’이라는 연준 정책의 대전제가 수정될 수 있음에 유의
 - CPI 발표 후 예상 '24년 금리인하 횟수(3회→2회) 축소 및 인하시점 이연(6월→9월)

■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당분간 높아진 금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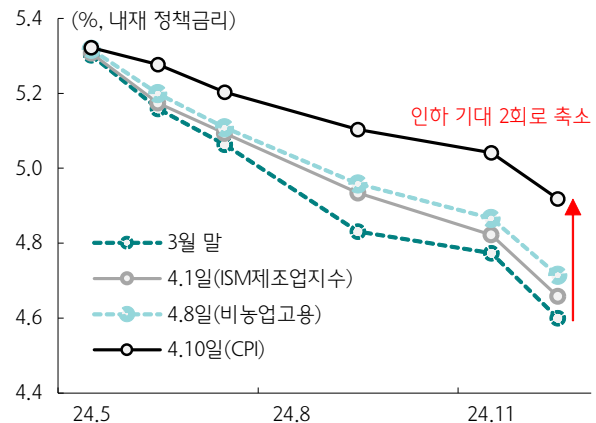
-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훼손되었다 판단하긴 이르고 임금상승률 둔화도 이어지나, 파월 의장이 강조한 2%로 물가가 둔화된다는 추가 확신(피벗 조건)을 위해선 최소 2~3달의 추가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내 3회 인하는 어려울 전망
- 韓銀총재는 연준 정책기조의 전환으로 독립적 통화정책 여력이 높아졌다고 언급했으나,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감안시 선제적 인하 가능성 제한적
- 국내 금리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로 레벨 상승 이후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35%~3.55%, 3.50%~3.70% 범위로 전망 

■ **美 헤드라인/근원CPI 상승률 및 항목별 기여도**



자료 : Bloomberg

■ **시장의 美 기준금리 인하 기대 수정**



자료 : Bloomberg

외환: 물가로 불붙은 외환시장에 기름 붓기

진 옥 희 연구원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전환 속에 대만 지진 및 중동갈등 격화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이어지자 재차 상단을 높이며 1,375원을 상향 돌파하였다. 달러화는 美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美 3월 근원 물가의 경직성 등으로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자 연고점을 경신하였다. 향후 원화는 양호한 美 경기 여건에 따른 달러화 강세와 BOJ의 완화적 기조 유지 전망, 4월 배당금 송금 수요 등이 맞물린 가운데 중동갈등 격화 여부를 확인하며 불안한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원/달러 환율] 美 금리인하 기대 조정과 위험회피 심리 등이 맞물리며 연고점 경신

- 원/달러 환율은 美 3월 고용지표 호조, 美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맞물린 연준 금리인하 경로 불확실성 등으로 재차 연고점 경시하며 한때 1,375원 돌파
 - 카시카리(미니애폴리스)와 바킨(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
- 아울러 '23.10월부터 이어진 이스라엘-하마스 갈등 격화 속에 이란 개입 가능성 증가와 대만 지진 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도 원화 약세를 견인

■ [국제 환율] 달러화는 美 제조업 경기 회복과 잔존한 인플레이 우려 속에 강세 전환

- 달러화는 제조업 경기가 17개월 만에 확장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美 3월 근원 물가의 경직성 등으로 6월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자 장중 연고점 경신(105.5pt)
 - 美 CPI/Core CPI(YoY, %): 2월 3.2/3.8 → 3월 3.5/3.8(예상 3.4/3.7)
 - 6월 기준금리 동결/25bp인하 확률(Fed Watch, %): 4.1일 42/57 → 4.11일 81/19
- 유로화는 3월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獨 산업생산 호조와 유로존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갔으나, 달러화 반등 속에 상승폭 반납
 - 獨 산업생산(MoM, %): 2월 1.3% → 3월 2.1%(예상 0.6%)
- 엔화는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우에다 총재의 완화적 발언과 23개월 연속 감소한 日 2월 실질임금, 美·日 금리차 확대 등이 맞물리며 153엔 돌파
 -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을 위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발언
- 위안화는 3월 中 차이신 제조업·서비스업 PMI 호조와 신규주택가격 반등 조짐에도 Fitch의 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약세
 - Fitch는 中 신용등급을 A+로 유지했으나 정부부채를 우려하며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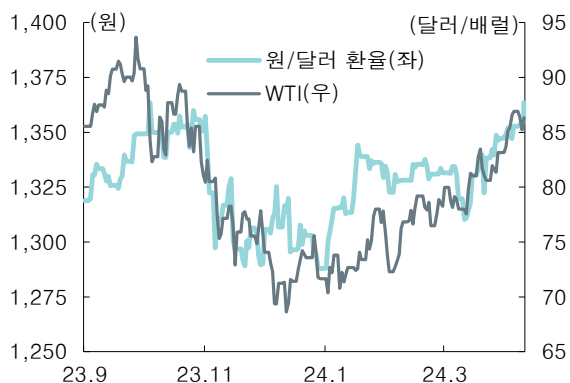
■ 국제유가 상방 압력 속에 중동 갈등 격화가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 국제유가는 OPEC+ 자발적 감산 연장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동 갈등 격화 등으로 6개월래 최고치 기록(WTI 4.5일 86.9\$/B)
 - 4.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공격에 대해 이란은 보복을 천명
- 美 신규 유정 투입비용 증가 등 생산여력 약화, 인도(우랄유 수입)의 원유 수입처 다변화, 글로벌 제조업 경기회복 등으로 유가는 당분간 높은 흐름을 이어갈 듯
 - 잔존한 美 미완결유정의 손익분기가격이 \$85로 추정되며 수익성 악화 우려 점증
- 다만, 사우디의 경기 악화('23.4Q GDP -3.7%) 속에 감산 지속 여력에 대한 의구심과 5차 중동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지 않는 등 유가 급등세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
 - 이란이 전면전을 택하기에 중동 주둔 미군의 공격, 대내 경기부진 등이 부담
- 유가 상승(교역조건 악화)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중동갈등 향방에 따른 위험회피와도 맞물리며 당분간 상방 변동성 확대될 전망

■ 원화는 양호한 美 경기와 日 완화적 기초, 배당시즌 등이 맞물리며 약세 흐름 이어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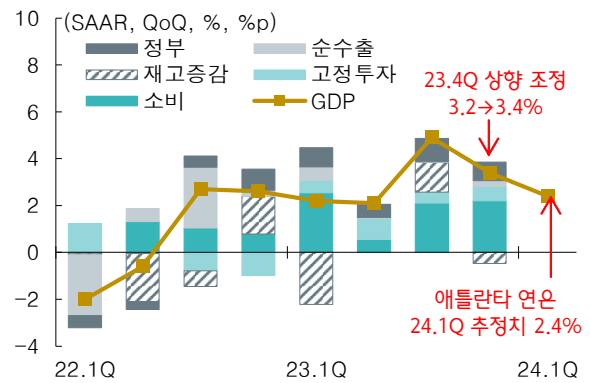
- 달러화는 예상보다 양호한 美 성장세(아틀란타 연은 美 1Q GDP 전망 연율 2.4%) 등으로 美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가 이어지며 강세를 이어갈 전망
- 원-엔 간 동조성이 높아진 가운데 4월 BOJ의 통화정책회의(25일)에서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한편, 여소야대 총선 결과로 벨류업 프로그램 지속 여부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과 4월 배당시즌 달러화 송금 수요 증가도 원화 가치에 부정적
- 이에 원/달러 환율은 중동갈등 격화 여부와 연준 베이지북(17일), 美 3월 PCE 물가(26일) 등을 주시하며 향후 2주간 1,340~1,400원에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 WTI 추이와 원/달러 환율



자료 : 인포맥스

■ 美 GDP 성장률과 부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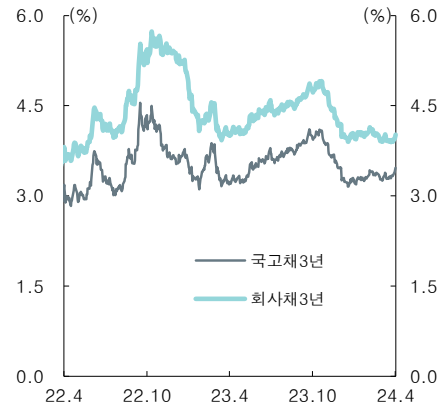


자료 : BEA, 애틀란타 연은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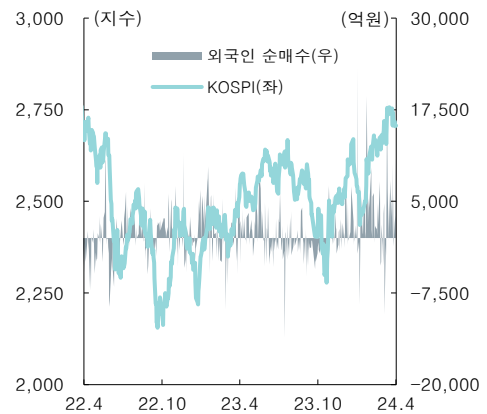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3월말	3.57	3.64	3.57	3.93	3.32	3.35
4월 4일	3.50	3.62	3.54	3.92	3.34	3.38
4월 5일	3.53	3.58	3.52	3.90	3.33	3.37
4월 8일	3.54	3.56	3.54	3.95	3.38	3.42
4월 9일	3.46	3.57	3.55	3.95	3.39	3.44
4월 11일	3.50	3.57	3.58	4.02	3.47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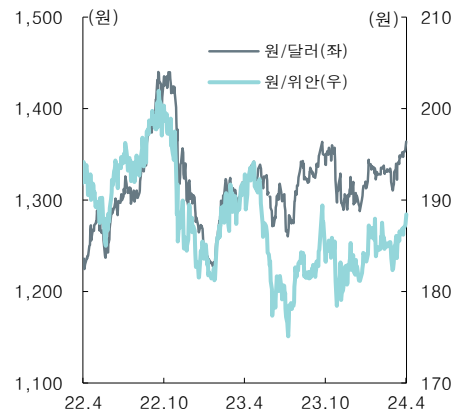
●●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3월말	2,746.6	111,901	495	7,823
4월 4일	2,742.0	119,782	478	5,864
4월 5일	2,714.2	112,939	621	-1,131
4월 8일	2,717.7	105,609	621	2,061
4월 9일	2,705.2	100,377	470	3,036
4월 11일	2,707.0	127,899	561	10,651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3월말	1,347.2	889.9	186.5	1,454.0
4월 4일	1,347.1	890.0	186.2	1,459.8
4월 5일	1,352.8	892.2	187.0	1,465.9
4월 8일	1,353.2	891.3	187.1	1,469.2
4월 9일	1,354.9	892.6	187.3	1,470.7
4월 11일	1,364.1	889.8	188.5	1,4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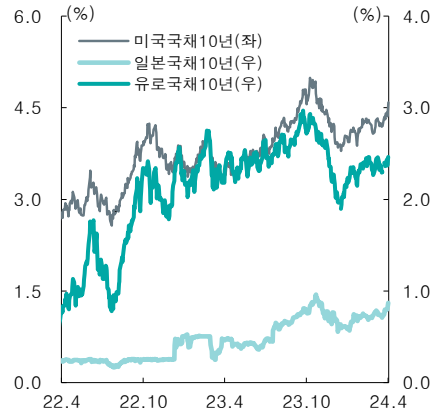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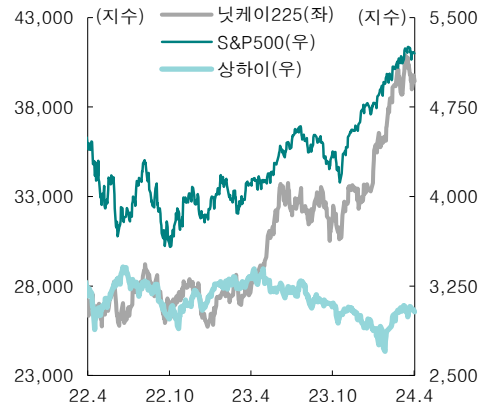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3월말	5.33	5.30	4.62	4.20	0.73	2.30
4월 4일	5.33	5.30	4.65	4.31	0.79	2.36
4월 5일	5.33	5.29	4.75	4.40	0.79	2.40
4월 8일	5.33	5.30	4.79	4.42	0.80	2.44
4월 9일	5.33	5.31	4.74	4.36	0.80	2.37
4월 11일	-	5.33	4.96	4.59	0.87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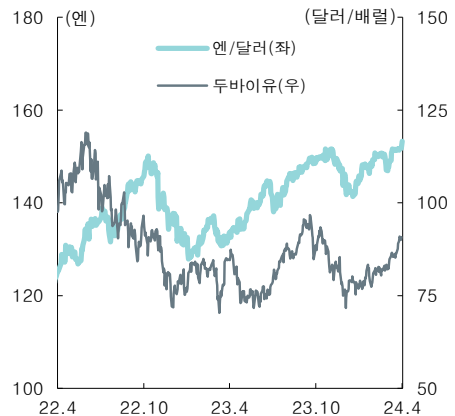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3월말	5,254.4	40,369.4	3,041.2	5,083.4
4월 4일	5,147.2	39,773.1	-	5,070.8
4월 5일	5,204.3	38,992.1	-	5,014.8
4월 8일	5,202.4	39,347.0	3,047.1	5,046.1
4월 9일	5,209.9	39,773.1	3,048.5	4,990.9
4월 11일	5,199.1	39,442.6	3,034.2	4,966.7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3월말	151.31	1.079	86.3	2,238.4
4월 4일	151.34	1.084	89.6	2,308.5
4월 5일	151.61	1.084	90.9	2,345.4
4월 8일	151.84	1.086	90.0	2,351.0
4월 9일	151.73	1.085	90.7	2,362.4
4월 11일	153.27	1.073	-	2,372.7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8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4년 4월 12일 인쇄

2024년 4월 15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8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